

보도시점 2025. 10. 16.(목) 15:30 / 배포 2025. 10. 16.(목) 08:30

공정거래위원회-한국산업조직학회 공동학술대회 개최

- ‘플랫폼 경쟁정책의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진행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10월 16일(목) 서울 프레지던트호텔에서 한국산업조직학회(회장 조성진)와 함께 ‘플랫폼 경쟁정책의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공동 학술대회를 개최하였다.

<공정위-한국산업조직학회 공동학술대회 개요>

- 일시 : 2025. 10. 16.(목) 14:30 ~ 18:00
- 장소 : 서울 프레지던트호텔 브람스홀
- 주제 : 플랫폼 경쟁정책 현재와 미래: 정책 방향과 국내외사례의 교차점
- 프로그램 일정

시 간	일 정
	전체사회 김인경 (서강대학교 경제대학 교수)
14:30 ~ 15:00	등록
15:00 ~ 15:10	인사말 조성진 (산업조직학회 학회장)
	축사 주병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제1부 주제발표 15:20 ~ 16:20	사회 이상승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제1주제 규제형평성 측면에서 바라본 온라인플랫폼 거래공정화 김윤정(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제2주제 글로벌 플랫폼과 로컬 플랫폼 - 국내시장 기준 규제의 문제 김성환(아주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16:20 ~ 16:40	휴식
제2부 종합토론 16:40 ~ 18:00	사회 남재현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토론자 한종희 (연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조성익 (KDI 선임연구위원)
	이우열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손지윤 (네이버 전무)
	윤철진 (원스토어 최고사업책임자)
	고인혜 (공정위 플랫폼공정경쟁정책과장)

이번 학술대회에는 학계 및 법조계 전문가뿐만 아니라 플랫폼 업체 관계자들도 함께 참석하여 한국 플랫폼 시장의 현황과 경쟁정책 방향에 대해 폭넓게 논의했다.

주경기 공정거래위원장(이하 ‘위원장’)은 축사에서 “플랫폼 경제는 밝은 면도 있지만, 시장을 지배하는 거대 플랫폼의 독점력 남용은 혁신과 경쟁의 기회를 차단하기도 하고, 거래상지위를 가진 플랫폼의 불공정행위는 소상공인의 생존을 위협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디지털 시장의 역동성을 저해하지 않으면서도,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불공정행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주경기 위원장은 지난해 겪은 일부 온라인 플랫폼의 대규모 미정산 사태를 언급하면서 플랫폼 입점업체를 보호하고,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입법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밝혔다.

이번 학술대회는 제1부 주제발표와 제2부 종합토론으로 나누어 진행되었다. 제1부에서는 ▲규제형평성 측면에서 바라본 온라인플랫폼 거래공정화(김윤정 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글로벌 플랫폼과 로컬 플랫폼 - 국내시장 기준 규제의 문제(김성환 아주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를 주제로 발표가 이루어졌다.

김윤정 선임연구위원은 온라인플랫폼 입점판매자의 30%가 불공정거래를 경험했다는 실태조사 결과를 제시하며 온라인플랫폼 거래 공정화법 제정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또한 규제형평성 측면에서 오프라인 유통, 통신판매업, 소비자보호 관련 법령은 모두 존재하는 가운데, 온라인플랫폼과 입점판매자간 거래를 규율하는 법령은 존재하지 않는 점을 지적하며 관련 입법이 시급함을 강조하였다.

한편, 김성환 교수는 국내시장 기준의 정량적인 사전규제가 외국 기업 대비 국내 기업을 역차별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함을 지적했다. 김 교수는 외국 기업과 국내 기업이 경쟁하는 한국 플랫폼 시장의 특성을 언급하면서 “우리나라의 시장 상황과 경쟁 구조의 특징에 대해 특별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제2부에서는 한중희 연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조성익 KDI 선임연구위원, 이우열 변호사, 손지윤 네이버 전무, 윤철진 원스토어 최고사업책임자 등 학계 및 현장 전문가들의 국내외 온라인플랫폼 시장 경쟁 현황과 한국의 온라인 플랫폼 정책 방향에 대한 종합토론이 진행되었다.

공정위는 이번 학술대회가 온라인플랫폼 경쟁정책 방향에 대해 다양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앞으로도 바람직한 정책 설계를 위해 이해관계자들과 소통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붙임> 공정거래위원장 축사

담당 부서	경쟁정책국 플랫폼공정경쟁정책과	책임자	과 장	고인혜 (044-200-4365)
		담당자	서기관	김혜선 (044-200-4371)
			사무관	정후영 (044-200-4367)



붙임

공정거래위원장 축사

보도일시 : 2025. 10. 16.(목)
15:30



공정거래위원회

축 사

- 공정위·한국산업조직학회 공동학술대회 -

- 일 시 : 2025. 10. 16.(목) 15:00
- 장 소 : 서울 프레지던트호텔 브람스홀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주 병 기**

1. 인사말씀

반갑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주병기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산업조직학회의
공동 컨퍼런스 자리를 마련해주신
조성진 학회장님을 비롯하여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플랫폼 경쟁정책이라는 중요한 이슈에 대해
학계와 현장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함께 논의하는
이 자리에 함께할 수 있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 플랫폼 시장의 성장과 정책 마련 필요성

오늘날 온라인 플랫폼은
디지털 경제의 중심으로 자리잡았습니다.

플랫폼은 이제 단순한 거래의 장을 넘어,
국민 생활과 산업 전반에 걸친 핵심 인프라로 기능하고 있습니다.

검색, 광고, 전자상거래, 음악 등
플랫폼은 이미 우리의 일상생활에
깊이 스며들어 있으며,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여
소상공인들에게 보다 많은 사업 기회를 제공하고
우리 경제에 활력을 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플랫폼 경제는 밝은 면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시장을 지배하는 거대 플랫폼의 독점력 남용은
혁신과 경쟁의 기회를 차단하기도 하고,
거래상지위를 가진 플랫폼의 불공정행위는
소상공인의 생존을 위협하기도 합니다.

3. 각국의 입법 동향

주요국 경쟁당국들도 각국의 시장 상황을 고려하여
플랫폼 시장을 적절히 규율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적 논의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독일의 경쟁제한방지법 개정, EU의 DMA 제정을 비롯하여
지난해에는 영국과 일본도 관련 입법을 완료하여
올해 본격적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4. 한국의 상황

이러한 국제적 추세 속에 한국에서도
활발한 플랫폼 관련 입법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

지배적 플랫폼의 독점력 남용행위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소상공인 등 입점업체를 보호하고
플랫폼 분야에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도 필요한 상황입니다.

특히 지난해 일부 온라인 플랫폼의
대규모 미정산 사태를 겪으면서
플랫폼 입점업체에 대한 보호장치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응하여 현재 다수의 법안이
국회에 발의되어 있으며,
한국의 시장 상황에 맞는 합리적인 입법을 위해
충분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5. 이번 컨퍼런스의 의의

학계와 현장의 목소리는
정책 설계 및 입법 논의 과정에서 중요한 길잡이가 됩니다.

이번 컨퍼런스를 통해
플랫폼 시장의 경쟁정책 방향 및 주요 국내외 사례에 대한
학계와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함으로써

디지털 시장의 역동성을 저해하지 않으면서도,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불공정행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제도 설계에 필요한 지혜와 통찰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오늘 마련된 귀중한 자리가
우리 플랫폼 시장이 더 밝은 미래로 나아가는데
큰 자산이 되기를 바랍니다.

6. 마무리 말씀

다시 한 번 이번 컨퍼런스 개최를 축하드리며,
한국산업조직학회의 무궁한 발전과
이 자리에 함께 계신 모든 분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